

“탄소섬유 육성 … 효성의 기술력으로 국난 극복”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방문
조현준 회장·조현상 총괄사장
“국내 탄소 독자기술 효성 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광주·전남·북 국회의원들이 22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효성탄소섬유공장을 방문해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으로부터 탄소섬유 제품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맨 왼쪽부터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 김희재 국회의원, 이낙연 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소병철 국회의원. /전주=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를 마친 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을 방문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위원장은 이날 효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총괄사장 등을 만나 ‘탄소섬유 관련 정부 지원’과 수출 상황 등을 묻는 등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효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총괄사장은 “효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위원장과 이용빈·김희재·소병철 국회의원 등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 참석자들은 효성첨단소재(주) 전주 공장을 찾아 탄소섬유 생산 공정을 둘러봤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데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인 ‘전략물자’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효성첨단소재(주) 전주 공장을 찾아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 위원장 등은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탄소 자동차 휠, 수소고압용기, 드론, 프리커서, 탄소섬유 등의 생산품을 직접 살펴봤다. 이 위원장은 효성 경영진에게 탄소섬유의 수출 현황과 내수 진작 방안을 묻고 직접 탄소섬유를 만져보는 등 탄소 산업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앞서 이들은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상용화센터를 찾아 첨단 장비와 기술 개발 현장 등을 지켜보기도 했다.
/전주=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수처 다음달 출범
국회서 협조 해달라”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두 사람의 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강압 수사의 흑과 관련,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충돌 양상을 보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또 “반부패개혁은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위원장 “광주·전남 현안 당 차원 적극 지원”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북도청서 호남권 간담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22일 전북을 찾아 “호남(지역)은 코로나19 대책의 모범을 보였고, 미래형 산업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먹거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당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요청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에서 “호남은 산업화가 늦고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심해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겪어 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몇 개 분야에서 앞서 가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호남의 넉넉한 자연과 다양한 먹거리가 코로나 치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의 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국내로 발견을 돌린다면 호남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집합금지 대상을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동참을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사·도민께서도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중심 시범(실증)도시 조성 사업(디지털 뉴딜) 4개, 친환경 대기산업 생태계 조성(그린 뉴딜) 2개, 광주형 일자리 정착·확산(일자리 뉴딜) 2개 등 모두 8개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한 현안은 집적단지 3대 주력 산업 분야 학습용 데이터 세트 개발, 시범·실증 도시 조성,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처리 특별법안 마련,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이다.
시는 또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근로자 주택 지원 규정과 구체적 방안 마련, 경제자유구역 신규 투자 첨단 업종의 법인세 감면도 요구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50만㎡ 규모 시범 도시를 조성하기로 하고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국비 4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생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자율주행, 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문화 등 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증하는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 미래산

업 판도를 바꿀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을 마련하고 올 7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민주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가 이날 밝힌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골자는 ‘최대 500억원의 보조금, 최장 50년 공장 부지 무상 임대, 전국 최초 설비 이전 비용 지원’이다.
도는 우선 해외로 나갔던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나 첨단 기업이 전남에 투자하거나 공장 이전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 최대 규모는 100억원이었다. 또 최장 50년간 공장 등 부지를 기업에 장기 무상 임대하는 과격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이전에는 없던 지원책이다. 전국 어느 곳도 시행한 적 없는 유턴 기업 설비·이전 비용 지원 방안도 최초로 마련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
 (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